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29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이장섭 · 임호선
우원식 · 김교홍 · 고용진
신동근 · 홍익표 · 이동주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·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,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탁)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(권한의 위탁) 금융위원회는</u> <u>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</u> <u>다.</u>